

치매 가족의 비극

부양 노모 살해 60대 아들 체포…“정신·경제적으로 어려웠다”

80대 치매 노인이 아들의 손에 숨지는 참극이 또 벌어졌다. 치매가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잠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숨진 노인은 광주시 북구에서 노점상을 해 오며 아들 자랑을 매일같이 하던 억척스런 어머니였지만, 수 년 전부터 치매를 앓으면서 함께 살던 아들과 자주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불과 한 달여 뒤면 복지당국의 지원이 이뤄질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광주북부경찰은 지난 14일 밤 9시 30분께 광주시 북구 용두동의 한 도로에서 60대 A씨를 존속살해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씨는 지난 13일(추정) 장성군의 한 야산에서 80대 어머니 B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자신의 1t 화물차 적재함에 둔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시신은 자택 인근에 세워진 1t 화물차 적재함에서 발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치매에 걸린 노모를 돌보면서 정신적·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지난 30년 동안 광주시 북구 용두동 일대에서 노점상을 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집 근처에서 수확한 포도부터 아들이 담양군에서 기운 채소, 봉 어빵까지 종목을 바꿔 가며 장사를 해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주변 상인들은 그를 ‘포도 아줌마’, ‘봉 어빵 할매’로 기억하고 있었다.

하지만 B씨는 5년여 전부터 치매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으며, 차츰 경제적 어려움도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B씨 노점 옆에서 25년간 호떡 가게를 운영해 온 70대 C씨는 “가족 관계를 훤히 알 정도로 가깝게 지냈다. 아들 자랑을 많이 했던 분”이라며 “내가 장사하기 5년 전부터 거리를 지키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엔 그대로 살 만해 보였는데 점점 형편이 어려워져 월세를 전전했다”며 “그런 상황에서도 시든 채소는 절대 팔지 않을 만큼 품질하고 성실한 사람이었다. 안타까운 소식을 들으니 눈물이 난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인근에서 양말 노점을 운영하던 D씨는 “잠시 봉

어빵 장사를 한 뒤로 시장에서는 ‘봉어빵 할매’로 불려 왔다. 치매를 앓은 지 꽤 됐는데도 매일 해오던 장사를 놓지 못했다”며 “지난해 가을에 장사를 접은 뒤에도 매일 노점을 찾아왔다. 그렇게 열심히 살던 분이다. 이를 전에도 봤는데 B씨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고 눈시울을 불었다.

B씨는 불과 다음 달부터 복지당국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도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B씨는 이달 초 가족의 도움을 받아 행정복지센터에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해 심사를 받고 있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건국동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B씨는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지 않다가 이달 초에야 신청했다. 통상 심사에는 한 달 이상이 소요된다”며 “장기요양서비스도 최근 딸이 신청해 심사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 딸의 요청으로 B씨를 입원시키기 위해 지난 14일 행방을 수소문했지만 발견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건이 발생했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인근에서 채소 가게를 운영하는 김모(60)씨도 “처음에는 가족 관계가 좋아 보였는데 치매가 진행되면서 점점 갈등이 생긴 것 같다.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기도 했다”며 “장사를 그만둔 뒤에는 건강 상태가 조금 나아지는 듯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B씨 이웃들도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웃 주민 정성남(72)씨는 “서울에서 일하다 내려온 A씨는 과묵하고 이웃과 교류가 많지는 않았지만, 직접 기운 농작물을 종종 나눠주기도 했다”며 “3년 전부터 B씨의 치매 증상이 심해지면서 많이 힘들어 했고, 표정도 점점 어두워졌다”고 밝혔다. 이어 “매일 새벽 4시면 A씨가 트럭을 몰고 채소를 떼어 가지고 B씨는 그걸 가져다 팔았다. 누구보다 부지런한 모자였다”고 했다.

한편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윤준영 기자 yoon@kwangju.co.kr
/여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2026 광주일보 신춘문예 시상식이 15일 오후 5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소설 부문 김수현 씨, 광주일보 최권일 편집국장, 동화 부문 김령희 씨, 시 부문 권리율 씨.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2026 광주일보 신춘문예 시상식 개최

단편소설·시·동화 3개 부문

2026 광주일보 신춘문예 시상식이 지난 15일 오후 5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문화정보원 내 국제회의실 리셉션 흘에서 열렸다.

시상식에는 수상자와 가족, 광일신춘문학회 회원, 문단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2026 광주일보 신춘문예 단편소설 부문 당선자 김수현 씨에게 상파와 상금 300만원, 시 부문 당선자 권리율 씨와 동화 부문 당선자 김령희 씨에게 각각 상파와 상금 100만원이 수여됐다.

김여송 광주일보 회장은 최권일 편집국장이 대

독한 축사에서 “광주일보 신춘문예는 역량 있는 신인작가 발굴을 위해 창간 이듬해부터 진행해온 전통과 권위의 등용문”이라며 “전반적으로 창작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도 당선의 결실을 이룬 수상자들에게 축하를 보낸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광주일보는 신문 지면과 문화전시회에 걸친 월간 ‘예향’을 통해 신인 작가들의 창작 활동을 비롯해 책 발간 소식 등을 지속적으로 보도해왔다”며 “앞으로도 신춘문예 외에도 호남 문학과 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2026 광주일보 신춘문예는 시 2314편, 소설 296편, 동화 238편 등 2848편이 응모됐다. 예년보다 많은 작품이 응모됐는데 한강 작가

의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창작에 대한 열망이 확대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와 달리 올해 신춘문예 작품들은 경향성 측면에서 다소 어두웠다는 후문이다. 다소 불안한 일상을 담아낸 작품들이 많은 편이었다. 세상과의 단절, 가족 갈등, 폭행, 실직 등 일상의 사소한 문제들을 모티브로 형상화한 작품들이 눈에 띄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광주전남 외 타 지역에서 응모한 문정들이 많았다. 서울, 경기,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외에도 부산, 대구, 대전, 세종, 제주 등 전국 각지에서 작품이 투고됐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한국인 당 섭취 2위 ‘탄산’…1위는? ‘사과’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사과를 통해 가장 당을 많이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위는 탄산 음료였다.

15일 질병관리청이 1세 이상 분석 대상자 68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최신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당 섭취 주요 급원식품(영양소를 주로 공급하는 식품) 1위는 사과였다.

사과를 통한 당 섭취량은 1일 3.93g이었으며 섭취 분율(영양소의 1일 섭취량 전체에 대한 식품별 섭취량 분율)은 6.9%였다.

2위는 탄산음료, 3위는 우유가 차지했다. 당 섭취량은 각각 3.55g, 3.40g이었으며 하루 당 섭취량에 대한 분율은 각각 6.2%, 5.9%였다.

한국인의 에너지 주요 급원식품 1위는 맵쌀이 차지했다. 맵쌀을 통한 1일 에너지 섭취량은 428.5kcal였으며 섭취 분율은 23.2%였다. 데지고기(101.9kcal·5.5%), 빵(68.6kcal, 3.7%)이 뒤를 이었다.

단백질 급원식품은 데지고기가 섭취량 8.82g, 섭취 분율 12.3%로 1위였으며 2위는 맵쌀(8.02g·11.2%), 3위는 닭고기(6.99g·9.7%)였다.

지방 급원식품 1위도 데지고기였으며 데지고기를 통한 지방 섭취량은 1일 6.75g, 섭취 분율은 12.9%였다. 이어 소고기(5.20g·9.9%), 흑기름(4.00g·7.6%) 순이었다.

/연합뉴스

제주항공 참사 조사위,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환

유가족 “법안 통과 환영…책임 있는 조사와 투명한 진상 공개 필요”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경위를 조사 중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조사위)가 국토교통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환됐다.

조사 유가족들은 “법안 통과를 환영한다”면서도 법 개정 이후 책임 있는 조사와 투명한 조사 진척 공개 등이 뒤따라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15일 입장문을 내고 “참사 이후 진상규명을 가장 우선시하며 투명하고 독립된 조사, 유가족들의 참여가 보장되는 조사를 염원했던 만큼 법

안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는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11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사조위의 소속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위원회 보고서를 국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하는 등 내용이 담겼다.

국회는 또 이날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제주항공 김이배 대표와 무안공항 시공사였던 금호건설 조완석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무안공항 최초 건설 당시 설계와 관련해 고령복서 영통신 대표를, 둔덕 문제에 대해서는 전직 서울지방항공청장들과 부산지방항공청 관계자 등도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이밖에 참사 유족과 조종사노조, 항공 관련 교수 등을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한편, 협의회는 “이번 국정조사는 은폐의 장막을 걷어내는 시작이며 진실을 밝힐 마지막 기회”라며 “사고 당시 사라진 ‘4분 7초’의 조종실 음성 기록장치(CVR)와 비행자료기록장치(FDR) 등 모든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복합적인 원인 조사를 거쳐 철저한 국정조사를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준영 기자 yoon@kwangju.co.kr

광주문화신협 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협
대표번호 1644-7990

· 본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